

여야, 문화전당특별법·김영란법 심야까지 진통

양당 원내대표 협상

핵심쟁점 줄다리기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 운영 기간과 정부재원 지원 등에 대해 접점을 모으고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앞서 여야는 물밑 협상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은 5년간 한시적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법안위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액의 1%를 금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 조항은 ‘1%’를 삭제하는 수준에서 의견 절충이 이뤄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설촌 의원은 이날 “여야 간 쟁점이 거의 없다. 하나 정도 남았다”며 “3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빅딜’을 요구해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정치연합이 통과되길 원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해 기재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통 큰 양보를 통해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등

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김영란법’ 처리 협상에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곤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다만 직무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해, 밤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뤄, 하지만 야

당이 100만원 이상 초과여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협상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나,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 등과 관련해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당원협의회 위원장 교체 놓고 김무성-서청원 정면 충돌

새누리도 제파갈등 재연 조짐

당직 인선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을 빚는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일부 당원협의회 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한 것이다.

김 대표를 주축으로 한 비주류 지도부의 결정에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 주류 측이 반기를 드는 형국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 간 전면전을 예고하는 장면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에는 ▲서울 동대문을 김형진 ▲부산 사하를 안준태 ▲인천 부평을 김연광 ▲경기 광명갑 정은숙 ▲경기 파주갑 박우현 ▲충북 청

주 흥덕갑 최현호 ▲충남 공주 오정섭 ▲장흥·강진·영암 전평진 등 부실 당협위원장으로 분류된 8명에 대한 교체 안건이 올라왔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황우여 전 대표 시절 홍문종 당시 사무총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또 친박 주류 측과 가깝고 지난 전당대회에선 서청원 최고위원 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강특위 관계자를 포함해 당직자들은 정상적인 당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활동이 전혀 없거나 이미 다른 자리로 이동한 인사들 위주로 교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친박 주류 측에서는 친박 불감이의 예고편이라는 우려를 드러내놓고 제기하는 상황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3·15의거 정부기념일 제정’

호남 4·19총연합회, 오늘 국회서 청원 공청회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상임대표 김영웅)는 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광주 3·15 의거 정부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 공청회’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박명서 (사)통일미래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김경철 광주국제예네테 이사장의 경과보고, 김영웅 상임대표의 인사말, 박우선 국회의원의 환영사, 정의화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 3·15 의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일인 이날 낮 12시45분께 광주에서 1200여명의 시민·학생·민주당원들이 합세해 벌인 금남

로 ‘국(國) 민주주의 장승’ 유희 데모다.

김 상임대표는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첫 규탄인 광주 장승데모는 이날 밤 김주열 주검으로 확대된 마산 1·2차 시민봉기와 서울의 4·18 고려대생 정치강제 집단테러 유희사태를 빚게 한 4·19 전국 불길의 첫 봉화이자 4월 혁명의 시월”이라며 “반세기 이상 가려져 온 광주 3·15 의거의 국가공식기록과 정부기념일 지정은 지금부터 전 국민의 몫이라는 점에서 공청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3년 10월 ‘광주 3·15 의거’를 행정적·법률적·역사적으로 공인한 기념사업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달만에 입연 박지원

“이병기 비서실장 잘된 것 같다”

당직 인선 등 당내 현안엔 언중유골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서 패한 뒤 말을 아끼며 은인자중하던 박지원 의원이 2일 디디어 말문을 열었다. 전대 후 처음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정국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박 의원은 닷새 전 트위터에 “세상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언제까지?” 라는

글을 올리며 활동 재개를 암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병기 국경위원장을 기용한 것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7개월 만에 비서실장으로 옮기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앞두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병기 비서실장 개인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잘 선택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문재인 대표), “유례없는 참 나쁜 인사다. 박정희 시대의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을 연상케 한다”(정청래), “국민을 상대로 공작정치 하겠다는 것이냐”(오영식, 이상 최고위원)는 비판 일색인 지도부의 인식과 한참 거리가 멀다.

박 의원은 당 현안에 대해서도 뼈 있는 말을 했다. 그는 “문대표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때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도 “당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통합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거론한 당무 문제란 사무부총장 등 일부 요직 인선과 관련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당무 보이콧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박 의원의 복귀 및 소신 발언이 지도부 내 이상 기류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전대 패배 이후 모래알처럼 흩어진 비노 진영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위명업’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 13개洞 순회 의정보고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산 갑) 의원은 2일부터 일주일동안 광산갑 선거구 시·군 의원들과 함께 13개동을 순회하며 ‘2015 합동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 의원의 19대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담은 동영상 의정보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보고 등이 이뤄지며, 주민들과 즉문즉답식의 간담회를 갖는 쌍방향 소통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장과 혁신, 박근혜 정부 국정시스템 전면 쇄신 요구 등 중앙 정치권 의 의정 활동 보고 및 호남고속철도 개통,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와 향후 과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실현,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을 위한 노력 등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과거의 성과보다 앞으로 남은 지역발전 과제와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미래지향적 의정보고회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비즈니스호텔 W

광주 상륙!!

(구.백운동 국제관광호텔)

남구청이전 원로
광주제2차(하철순환선)백운역 확정
백운고기로 철거후 지하화 확정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차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0대)확보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기회 1순위 지역

8층 (1209㎡)	중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7층 (1209㎡)	개인병원, 의원, 스카이라운지
6층 (1209㎡)	비즈니스 호텔
5층 (1209㎡)	비즈니스 호텔
4층 (1209㎡)	비즈니스 호텔
3층 (1209㎡)	비즈니스 호텔
2층 (1209㎡)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2150㎡)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파우치상점, 한의원, 판매시설, 침치전문점
지하1층 (2170㎡)	스포츠및사치, 유흥/엔터테인먼트,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4200㎡)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콜라텍

긴급임대

국제비즈니스호텔 W

(구.백운동 국제관광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임대문의) 010-2112-3232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심리상담사, 가정사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오전 9:00~1: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혜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신대학교